



이문열·형민우 초한지 ⑤ 운명의 시작

이문열 원작 | 형민우 각색·그림

반양장 | 46배판 | 172쪽 | 값 9,500원 | 9세부터 | 2014년 7월 28일 펴냄 | 고릴라박스

ISBN 978-89-6548-047-1 77820, 978-89-94629-12-4(세트)

우리 시대의 거장 이문열과 한국 만화계의 신화 신영우가 만났다! 『삼국지연의』와 쌍벽을 이루는 고전 문학 『초한지』의 결정판!

대한민국 대표 작가와 만화가가 만나 화제가 되었던 『이문열·형민우 초한지』 시리즈의 5권이 고릴라박스에서 출간되었다. 총 10권으로 기획된 이 시리즈는 우리나라 최고의 만화가 중 한 명인 형민우가 사마천의 『사기』를 원전으로 하여 역사적 사실에 충실한 이문열의 『초한지』를 어린이와 청소년의 눈높이에 맞춰 새롭게 그려 냈다. 『초한지』는 나관중의 『삼국지연의』와 쌍벽을 이루는 역사 소설로, 기원전 200년 무렵 진나라 말기에 중국 역사상 최고의 장수로 꼽히는 항우와 시골 농민 출신 유방의 불꽃 튀는 대결을 드라마틱하게 재구성한 고전 명작이다. 매력적인 영웅들, 명확한 대결 구도, 당시 동아시아 패권을 결정짓는 대결이라는 역사적 의의 때문에 시간과 나라를 초월해 끊임없이 영화, 드라마 등으로 재탄생되며 사랑받고 있다. 『이문열·형민우 초한지』 시리즈는 원작 내용을 충실히 살리면서도 형민우 특유의 박진감 넘치는 연출로 만화적 재미를 더해 어린이부터 성인까지 누구나 재미있게 읽을 수 있다. 또한 중국의 역사와 지리, 문화 등 교과서에서 제대로 다루지 않은 학습 정보를 실어 다양한 역사 상식과 어린이에게 꼭 필요한 교훈을 전달한다. 『이문열·형민우 초한지』 5권에서는 항량의 수하로 들어가려는 유방, 그러한 유방을 따르기로 결심한 책사 장량, 항우를 도와 초나라를 재건하려는 범중 이야기가 펼쳐진다.

● 역사적 사실에 충실한 원작

지금껏 많은 수의 초한지가 번역돼 나왔지만 이문열의 『초한지』만큼 정사(正史)에 가까운 책은 없었다. 역사를 비틀고 왜곡하여 오히려 무협에 가깝다는 평가를 받는 『서한연의』를 원저로 한 다른 저작에 비해, 이문열의 『초한지』는 『사기』와 『자치통감』 등 실재하는 역사서를 바탕으로 하여 새롭게 창작된 작품이기 때문이다. 이 책의 원작을 이문열의 소설로 삼은 것도 이 같은 이유에서다. 이 책이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교양 역사서로서 손색없는 이유이기도 하다.

● 동양의 정서를 화폭에 담다

2011년에 개봉한 할리우드 영화 《프리스트》의 원작자답게 형민우는 대한민국 만화계의 수출 첨병이다. 수많은 마니아를 거느린 그가 세계적으로 실력을 인정받는 이유는 압도적인 작화 실력과 발군의 스토리텔링 덕분이다. 그런 그가 인간에 대한 깊은 탐구심을 바탕으로 동양적 정서가 가득 밴 수묵화 같은 배경 속에 살아 숨 쉬며 약동하는 영웅들의 자화상을 그려 냈다.

형민우는 수묵화 같은 배경을 창조해 내기 위해 한지의 질감을 만들어 내는 작업과 동시에 매 컷마다 농담을 살려 채색하는 고전적인 방식을 택했다. 이 같은 방식은 오랜 작업 시간과 높은 비용을 이유로 점차 사라져 가는 추세지만, 그는 자신만의 디지털 컬러링 기법을 도입하여 수묵화의 농담을 디지털화하는 데 성공했다. 이 같은 작업 방식을 택한 이유에 대해 그는 초한지만의 고유한 동양적 정서를 살려 내기 위해서라고 말한다. 그리고 이러한 노력의 결실은 강한 남성미를 내뿜는 거친 캐릭터들과의 완벽한 조화에서 더욱 빛을 발한다.

● 인간과 인간의 꿈에 대한 끈질긴 탐구

형민우는 전작 『프리스트』에서 보여 준 바와 같이 이 책에서도 깊은 철학적 통찰을 보여 준다. 그는 인간과 인간이 이루고자 하는 꿈에 관해 시황제와 항우, 유방에게 집요하게 질문한다. 게다가 상투적이지도 않다. 이제껏 어느 초한지에서도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캐릭터(대운선사와 그의 제자들)를 등장시켜 그들의 눈에 비친 영웅들의 참모습을 보여 준다. 『이문열 · 형민우 초한지』가 천편일률적인 영웅 이야기를 뛰어넘어 인간과 역사에 관한 가치 있는 인문서로 읽힐 수 있는 대목이다.

● 다양한 역사 지식과 학습 상식

초한지는 실제 역사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이문열 · 형민우 초한지』에서는 중국의 역사와 지리, 문화 등 교과서에서 제대로 다루고 있지 않은 학습 상식을 교육적 목표에 맞춰 별도로 마련했다. 항우와 유방 두 영웅호걸의 이야기를 읽다 보면 어느새 교양인이 된 자신을 볼 수 있다.

● 차례

- 1화 패현의 영웅 유방
- 2화 잔인한 승자 항우
- 3화 주군을 찾은 장량
- 4화 운명을 거스른 천재 범증
- 아는 만큼 재미있는 초한지
- 번외편

● 줄거리

소하의 도움 덕분에 쉽게 패현을 손에 넣은 유방은 훗날 더 큰 뜻을 이루기 위해 항량의 휘하로 들어 가려 한다. 그러던 중 유방은 우연히 뛰어난 책사 장량을 만나 함께하기로 하고, 범증은 천하의 주인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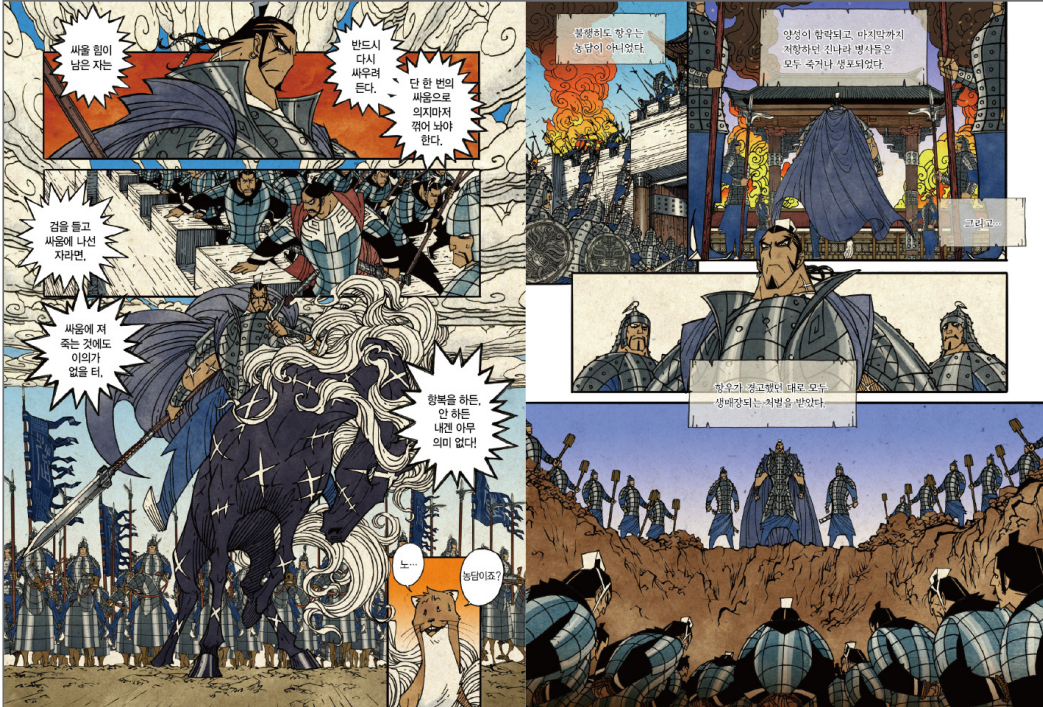
될 자가 항우가 아니라 유방임을 깨닫지만 항우를 도와 운명을 거스르기로 결심한다. 한편 진승의 반란군을 무찌른 장함이 위나라를 공격하려 하자 위, 초, 제 세 나라는 연합하여 대항하기로 하는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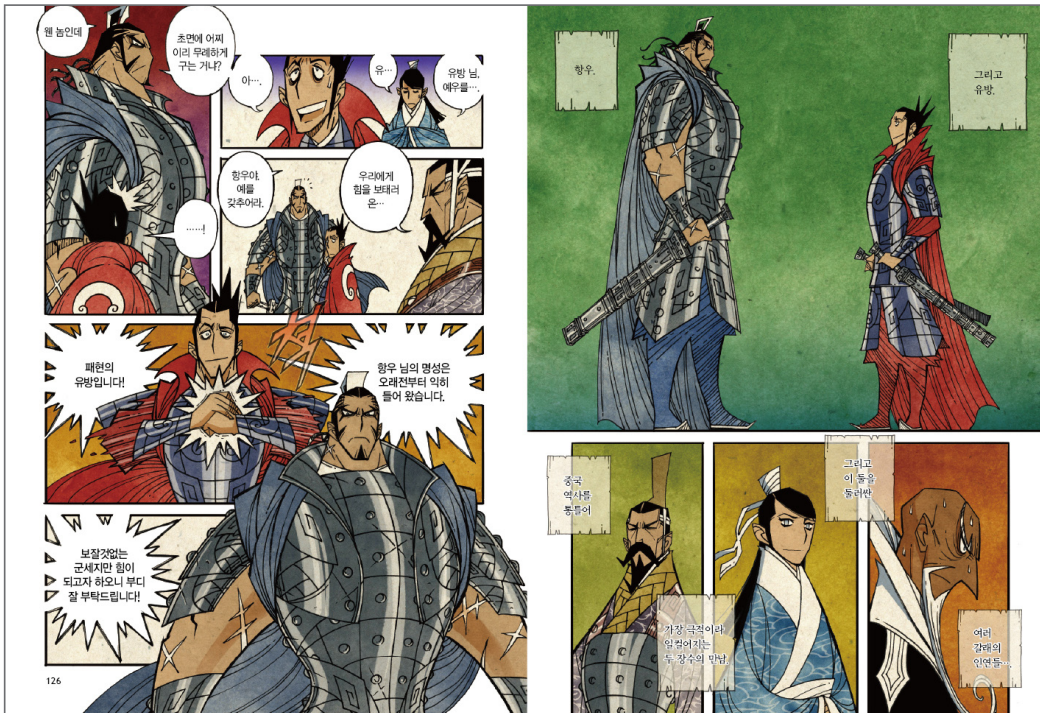
● 작가 소개

원작 이문열 | 1948년 서울에서 태어나 경북 영양 등지에서 자랐다. 서울대학교 사범대학에서 수학했으며 1979년 《동아일보》 신춘문예로 등단했다. 주요 작품으로는 『사람의 아들』, 『젊은날의 초상』, 『황제를 위하여』,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 『시인』, 『호모 엑세쿠탄스』, 『리투아니아 여인』, 『변경』, 평역소설 『삼국지』, 『수호지』, 『초한지』 등이 있다. 오늘의 작가상, 동인문학상, 이상문학상 등을 수상했다. 그의 작품은 현재 미국, 프랑스 등 전 세계 20여 개국 15개 언어로 번역·출간되고 있다.

각색·그림 형민우 | 1993년 단편 『치씨부임기』로 데뷔한 이래 독특한 작품 세계와 화풍으로 우리 만화의 해외 수출에 선봉장 역할을 하고 있다. 주요 작품으로는 『프리스트』, 『태왕복멸기』, 『고스트페이스』, 『무신전쟁』 등이 있다. 이 중 대표작인 『프리스트』는 온라인 게임으로 만들어져 중국 등에 수출되었고, 할리우드 영화로도 제작되었다. 대한민국 만화문화대상 등을 수상했다.

● 상세 이미지





이제는 만물 재이있는

초한지

중국 역사상 최고의 책사 장량

책사란 남을 도와 파멸 내는 사람을 말합니다. 인류 역사 이래 지금까지 수많은 전쟁이 있었고, 그 전쟁만큼이나 많은 책사들이 존재했습니다. 그 가운데 장량은 중국 역사상 가장 뛰어난 책사 중 한 명으로 꼽힙니다.

상황제를 암살하려 하다

장량은 한나라의 명문가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연이어서 한나라의 제상을 지냈는데, 당시 장량의 집안은 부리는 사람만 300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한나라가 진나라에 멸망당하면서 장량의 집안은 몰락하고 말았습니다. 이른이 된 장량은 조상의 원수를 갚고 한나라를 다시 일으키고자 상황제를 암살하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장해 역사를 설득해 마침내 박양사에서 전국을 순시 중이던 상황제를 암살하려 했지만 결국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이후 장량은 전군의 수색을 피해 전국을 떠돌아다녀야만 했습니다.

기이하게 여긴 장량이 다섯 뒤 새벽에 다시 다리에 가 보니 노인이 병방시를 내놓으며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이 책을 읽으면 제왕의 스승이 될 수 있으며, 10년 후에는 그 뜻을 이룰 것이다.” 장량이 노인의 이름을 묻자 노인은 “13년 뒤 곡성산 아래를 지날 때 눈에 띄는 누런 바위(黄石, 황기)가 보일 테니 그걸 바로 받아라.” 하고는 그곳을 떠났다고 합니다.

장량이 우연히 만난 이 노인이 바로 황석공이며, 장량이 받은 책은 주나라 문왕의 스승이자 기원전 11세기에 활약한 지략가 강태공이 지었다는 진설의 병법서 《태공병법》입니다. 장량은 학비에 머물면서 이 책을 익혀 세상의 이치와 만물의 원리를 깨닫고 병법을 연마했습니다.

진설의 병법서를 익히다

장량이 학비에 숨어 살 때였습니다. 어느 날 다리를 건너지 못하고 있는데, 한 노인이 다가와 임부리 신을 다리 밑으로 떨어뜨리고는 내려가서 주위 오라고 하였습니다. 장량은 화가 났지만 상대가 노인이었기에 꼭 잡고 다 아래로 내려가서 신을 주워 왔습니다. 그러자 노인이 신을 신겨 달라 하였습니다. 장량은 피려한 노인이니 생각했지만 노인을 위해서 무릎을 꿇고 앉아 신을 신겨 주었습니다. 노인은 고맙다는 말 대신 다섯 뒤 새벽에 다시 만나라며 혼잣말을 한 뒤 사라져 버렸습니다.

천 리 밖에서 전쟁을 이기다

장량이 학비에 머문 지 10여 년이 지났을 때, 이곳저곳에서 진나라에 반대하는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장량 역시 100여 명의 젊은이를 모아 반란에 합류하고 후에 유방을 만나게 되어 유방을 따르기로 결심했습니다. 장량은 자신이 모실 주군으로써 유방을 선택했던 것일까요? 장량은 유방을 처음 만났을 때부터 호감을 느꼈습니다. 단순한 건달 같지만 꾸밈없고 순박한 모습에 묘한 감동을 받았고, 빙 비어 있지만 천하를 통째로 담을 정도로 큰 그릇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까닭에 장량은 유방을 가리켜 “하늘이 내렸다.” 리며 그를 따르길 주저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후 유방의 책사가 된 장량은 난세의 천재 발종과 막강한 화의 계책을 발휘하며 천하통일의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유방은 그를 보고 “군막에서 계획을 세워 천 리 밖에서 벌어진 전쟁을 승리로 이끈 것이 장량이다.” 라고 할 정도로 높이 평가하였습니다.